

“여수시 임신부라면 ‘맘편한 임신 원스톱서비스’ 누리세요”

모자보건수첩 발급·산모-신생아 건강관리·KTX 특실 할인 등

각종 서비스들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 통합 신청 서비스

여수시가 임신부들의 편의를 위해 ‘맘편한 임신 원스톱서비스’를 시작했다.

맘편한 임신 원스톱서비스는 보건소·읍면동주민센터·한국철도 등 다양한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했던 각종 서비스들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

도록 개선한 통합 신청 서비스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임신제·절분제 제공, 모자보건수첩 발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전기·도시가스 등 에너지 이용권,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 청소년 산모), 맘편한 KTX특실 할인 등의 서비스를 한 번

에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여수시 임신부라면 전국 공통 서비스와 함께 임신부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관내 산부인과 이용 시 임신 확진비 최대 4만 원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 환급신청 등의 서비스도 신청 가능하다.

시에서 제공하는 기형아 검진 쿠폰, 유축기 대여와 임신부 모성 검사 등은 기존대로 보건소를 방문해야 한다. 올해 도입한 임신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는 현재 918명에게 지원 중이며, 추가 신청자는 하반기 예산 확보 시 지원할 계획이다.

임산제·절분제 등은 요금을 부담할 경우 택배서비스도 제공되지만, 일반의약품은 택배 배송이 어려운 관계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해 7월경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출생신고도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양육·아동 수당 등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나 임신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읍면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임산부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서비스를 늘려나가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오성호기자



무안군 지사협, 사랑 품은 푸드카 운영

오는 11월까지 월 1회 운영할 예정

무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달 27일 초당대학교 초당지역공헌센터(센터장 정준수)와 협업해 관내 지역아동센터와 초등학교 돌봄교실 이용 아동 150여 명을 위해 사랑 품은 푸드카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으며, 이날 초당대학교 외식조리학과 학생들은 정성껏 준비한 음식과 영양 간식을 아이들에게 나누어주었다.

군은 오는 11월까지 푸드카를 월 1회 운영할 예정이며 17개 지역아동센터, 16개 초등학교 돌봄교실, 소전원,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아라해제 마을학교 이용 아동 등 800여 명의 아동·청소년들에게 계절에 맞는 영양 간식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산 군수는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관내 아동·청소년들에게 정성이 가득 담긴 간식을 지원하게 되어 뿌듯하다”며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힘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무안=이기성기자

보성군, 장애인이 24시간 안전하게...‘범죄 꼼짝마!’

여성장애인 주거지 입구 등에 CCTV 설치·모니터링



보성군은 여성 장애인의 안전한 생활권 보장을 위해 관내 발달장애인 가정 다섯 곳을 선정해 CCTV설치 사업을 진행했다.

대상자는 여성 장애인 중 보호자가 부



재하거나 보호 기능이 취약한 가정이며, 장애 가정 주변에 CCTV 설치 유무도 고려됐다.

보성군은 보성경찰서와 합동으로 주거지 입구 등에 카메라를 설치하였으며, 경

찰서 및 장애인 보호자가 실시간으로 영상을 모니터링 할 수 있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건 발생 시 증거 확보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보성군 관계자는 “인지능력 저하로 범죄에 취약한 여성 지적장애인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며 “치안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 정신·발달장애인 거주지에 CCTV 설치를 통해 촘촘한 범죄예방환경(CPTED)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보성군에서는 2021년 신규사업으로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배회감지기 보급 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의 안전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보성=김택순기자

곡성군, 직원 대상 심리상담실 운영

매월 둘째주·넷째주 목요일, 전문심리상담사 통한 심리상담실 운영

곡성군이 직원들의 정신건강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직원 심리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가하는 일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언과 폭행을 당한 직원은 물론 이를 제

지하거나 지켜본 직원들도 심각한 정신적 피로감과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공무원의 사기 저하는 행정력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심리상담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곡성군은 매월 둘째주, 넷째주 목요일에 전문심리상담사를 통한 심리상담

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직무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가족관계 등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곡성군 소속 직원은 물론 직원 가족까지 이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상담을 통해 직원 모두 건강하고 즐겁게 근무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직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여러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곡성=양혜영기자

책과 함께 즐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